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06, Vol. 25, No. 1, 89-104

일상적 창의성의 성격 요인과 개별성-관계성과의 관계*

정 은 이† 박 용 한

청운대학교 미시간 주립대학교

본 연구는 일상적 창의성의 성격 요인과 개별성-관계성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관을 보았는데 일상적 창의성 총점과 개별성과는 .44, 관계성과는 .55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개별성, 관계성도 높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중다 회귀분석, t 검증을 통해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개별성, 관계성이 모두 높음을 밝혀내었다. 즉 창의적인 사람들은 독립적, 혁신적이며 자기 주장적인 특성 즉 개별적인 성향과 협동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외향적인 특성 즉 관계적인 성향을 동시에 높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창의적인 사람들의 성격 연구에서 나타났던 긍정적, 부정적 성향들 또는 양극단의 성격 특성들을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앞으로의 창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 의미상 모순적인 성향들이 같이 공존할 가능성에 관한 시사점을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일상적 창의성, 개별성, 관계성

---

* 이 논문은 정은이(2002)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것임.

† 교신저자 : 정은이,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산 29
E-mail : jejei@chungwoon.ac.kr

창의적인 인간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인간(Rogers, 1961), 자아실현을 하는 인간(Maslow, 1961)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은 그 자체로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다. 이러한 창의성의 여러 영역 중에서 최근 일상적 창의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정은이, 2003; 정은이, 박용한, 2004; Richards, 1999).

일상적 창의성이란 제반 사태나 문제를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해가며 개인의 자아 실현과 적응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것으로, 일상 생활에 유용하고 적절한 사적인 산출물을 내는 사고와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은이, 2003). 일상적 창의성은 특히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행복과 적응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상적 창의성의 유용성과 더불어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창의성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창의성이라는 구인 자체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 적절한 해석과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우리 주의' 의식이 강한 한국 상황에서 창의적인 사람은 독단적이고 특이하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되기도 한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모순적인 경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Tardif와 Sternberg(1988), Maslow(1954) 등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특히 대인관계에서 모순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밝혔다. 즉, 창의적인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 자기중심성과 이타심, 반항심과 동조성 등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순적으로 보이는 성향들을 정리해보면 독립적, 혁신적이며 자기 주장적인 특성 즉 개별적인 성향과 협동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외향적인 특성 즉 관계적인 성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별성은 분리지향적인 자기개념으로 탈맥락적인 성향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만의 독특한 정체감을 추구한다. 개별성은 독립, 자율, 개성추구, 자기확신, 자기주장적, 성취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관계성은 연결지향적인 자기개념으로 자기와 세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친밀한 유대와 상호의존성을 추구한다. 관계성은 타인에게 관심이 많으며, 우호적이고 친밀하게 교류하며,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정서를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조윤경, 2003). 이러한 개별성-관계성에 관한 연구는 척도 개발(김동직, 한성열, 1998)과 더불어 자기위로 능력 및 자의식(한기연, 2003), 나-우리의식 및 심리사회적 성숙도, 대인관계 문제(조윤경, 2003), 탈북주민의 심리적 적응(채정민, 이종한, 2004)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의 경향을 나타냈으나 급속한 서구 문화의 유입과 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어졌다. 이렇듯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차원인 개별성, 관계성과 일상적 창의성이 한국 상황에서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일상적 창의성

창의성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창의적인 능력과 인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일상

적인 영역에서 창의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상적 창의성(everyday creativity)이란 일이나 여가에서의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창의적인 사람 혹은 창의적 산물, 아이디어, 행동을 일컫는다. 이는 새롭고 특이한 면, 즉 독창성과 타인에 대한 유의미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또한 생존 능력 또는 성장 발전을 지속시키는 동기로 볼 수 있는 일상적 창의성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즉 일상적 창의성은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일상생활에서의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적 창의성은 전문적 창의성과 구별되는데 이는 특수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인지 양식이나 지향성, 적응성으로 우리 인생의 유연한 적응과 개인적인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일상적 창의성은 사람들이 대처하는 것을 도와주고 육체적 심리적인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켜주며 더 나아가서는 자아실현과 세상에 대해 공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Richards, 1999).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용어의 정의와 척도의 개발로부터 시작하였다(정은이 · 박용한, 2002). 그 이후 일상적 창의성이 자기 존중감과 생활만족감과는 정적 상관, 대인불안과 고독감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는 결과, 즉 심리 · 사회적 적응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연구와(정은이, 2003),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정은이 · 박용한, 2004).

개별성-관계성의 정의

개별성과 관계성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유사한 용어들과 더불어 매우 포괄적인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아주 넓게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특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개별성과 관계성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Woike, 1994).

전통적으로 서구 문화권에서는 자기(self)라는 개념을 탈맥락적인 성향적 속성(dispositional attributes)을 지닌 독립적 실체로 간주해 왔다(Berscheid, 1994). 이에 따라 산업화된 서구의 토착 심리학은 심리적 성숙의 필수적인 구성요인으로 개별성, 자율성, 독립성, 성취동기 및 정체감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Guisinger & Blatt, 1994). 자기에 대한 이러한 가정은 필연적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속성을 획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차적 과제로 상정하게 된다.

개별성과 관계성에 관한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타인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즉 개별성으로 분류된 특성들은 자기-타인의 관계에서 자기 쪽에 비중을 두는 개념들이며, 관계성으로 분류되는 개념들은 타인 쪽에 비중을 두는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 개별성은 흔히 분리(seperation), 개별화(individuation), 주도성(agency), 개성(uniqueness), 차별화(differentiation), 독특성(distinctiveness)등의 용어와 유사한 개념을 공유하며, 때에 따라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관계성은 우호성(agreeableness), 친화성(affiliation), 집단성(collectiveness), 연대성(communion), 소속감(belongingness), 연결성(connectedness) 등의 용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김동직, 한성열,

1998).

개별성으로 분류되는 개념들에는 자기 주장성, 성취 지향성, 자율, 독립 등이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자기 지향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자신을 자율적이거나 독립적인 사람으로 지각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별개의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주장적인 행동이나 성취 지향적인 행동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맥락에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자의식과 자기와 타인이 별개의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관계성으로 분류되는 개념들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특성들로는 타인과의 연결, 대인민감성, 친밀 및 친화성, 정서적 표현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의 공통점은 타인지향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친밀성이나 친화성에 대한 정의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밀이나 친화란 타인의 배척을 두려워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McAdams & Constantian, 1983). 타인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개방하며, 타인에게 따뜻한 배려를 제공하는 등의 타인지향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별성-관계성과 관련된 개념들의 유사성을 종합하면 개별성과 관계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성은 독립과 자율 및 개성을 추구하며, 자기 주장적이고 자기 확신이 강하며,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반면에 관계성은 자기와 세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남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과 비교적 자유롭게 정서를 교환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개별성-관계성의 상호 독립성

Guisinger와 Blatt(1994)는 Erikson의 전생애 발달의 관점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의 독립성을 논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유아기의 발달 과제인 신뢰와 애착 형성이나 아동기의 발달 과제인 자율성 등은 상호 참조 과정 없이 비교적 독립된 상태로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 이르면, 이미 초보적인 수준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의 협응과 통합이 필요하게 된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체감 형성이란 친족이나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개별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별성과 관계성의 협응 및 통합은 그 이후의 발달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성인기 이후의 친밀감, 생산성, 삶의 통합 등의 과제는 유아기와 아동기의 애착이나 자율성의 형성처럼 상호참조 과정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개별성과 관계성은 상반된 개념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발달 과정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심리적 발달을 상호 보완적으로 촉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개별성과 관계성이 한 개인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자기 개념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을 종합할 때, 자기 개념이 전통적으로 가정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것이 아니며, 자기 개념을 더 이상 통합된 단일체로 연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Banaji & Prentice, 1994; Bersheid, 1994; Brewer & Gardner, 1996; Markus & Cross, 1990; Markus & Wurf, 1987).

Markus와 Wurf(1987)는 어떤 개인의 자기 개념이 때로는 모순되고 상반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사자가 그러한 차이를 잘 인식하고 있고,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유효 적절하게 표현된다면, 그것은 혼란스러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대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Trafimow, Triandis와 Goto (1991)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모순되고 통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특성들이 한 개인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적 자기 개념과 집단적 자기 개념은 한 개인의 기억 속의 서로 다른 장소에 저장되어 있다가 맥락에 따라 둘 중의 한 개념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의 자기 개념이나 타인 지각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 일관성의 원리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 인지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밝혀졌다. 즉,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이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 모순되는 방식으로 표출될지라도 그것을 조절하려하지 않고 별개의 도식으로 처리한다(Srull & Wyer, 1989). 이런 능력들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는데, 아주 어린아이들조차 자기의 부모나 친밀한 타인들이 상황에 따라 매우 모순된 행동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며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측면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줄도 안다는 것이다.

개별성과 관계성은 본질적으로 어느 쪽이 더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며, 대인관계 맥락에 포함된 다양한 요인들의 조합에 따라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거나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뿐이다. 개별성이 요구되는 맥락이나 그러한 특성을 선호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는 개별성이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며 관계성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김동직, 한성열, 1998).

전통적 정신분석 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성과 관계성은 흔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개별성과 관계성은 반대되기보다는 거의 직교적인 차원에 위치하는 개념이라고 시사하고 있다(Dolinger et al., 1996). 자기 복합성이나 인지 복합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개별성과 관계성이 한 개인 내에 독립적으로 공존할 가능성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개별 지향적이거나 관계 지향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상에서 부딪치는 많은 상황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나 한 가지 방식으로 행동하기 어렵게 할 때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적응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Guisinger와 Blatt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개별성과 관계성의 어느 한쪽을 희생해 다른 쪽을 강조하는 이론은 심리적 발달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필연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Cushman, 1990; Dolinger, Preston, O'Brien, & DiLalla, 1996; Helgeson, 1994; Sampson, 1988). 오히려 개별성과 관계성이 독립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발달할 때, 혹은 변증법적 균형 상태를 이룰 때 건강하고 성숙한 성격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윤경(2003)은 나의식이 개별성-관계성 둘 다와 관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채정민과 이

종한(2004)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신뢰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아서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Dolinger 등(1996)이 시사한 대로 개별성과 관계성의 균형 잡힌 발달은 인생에서 부딪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산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개별성과 관계성의 어느 한쪽 특성만 발달시킨 사람에 비해 양쪽 특성을 조화롭게 발달시킨 사람이 만족스런 관계유지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개별성과 관계성 구조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는 창의성과 대인관계 성향 및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 그 함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의 대인관계 성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모순적인 대인관계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

Tardif와 Sternberg(1988)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대인관계 연구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타인과 논쟁을 잘하거나 반사회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는 모순적인(paradoxical)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창의적인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타인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며, 사회적 요구에 저항을 한다. 그러나 이들은 타인들과 융합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카리스마가 있고, 윤리성과 동정심을 갖고 있고, 타인의 요구에도 민감한 편이다. 이런 성향이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Einstein을 들 수 있다(Storr, 1972).

Maslow(1954)는 자아실현을 한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모순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이들은 친절함-무정함(ruthlessness), 타인에게 소원-타인인식(identification), 내향성-외향성, 남성적-여성적 등과 같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Maslow(1959)는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율(autonomy)적인 기질이 일반인들보다 많다고 하면서, 이들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심이 강하고 두려움과 적대감이 없다고 피력하였다.

한편, Bloom(1963)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사회나 타인들에게 위축되지 않았으며, 또한 창의적인 사람들은 반항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과시적인 특성을 보였다고 하였다(Barron, 1963, 1969; Drevdahl, 1956; Mackinnon 1960).

Gardner(1993)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감(self-confidence)이 과하여,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자기도취(self-absorbed)에 빠져,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전적으로 자기 일에만 전념하며, 이들은 주변 환경에 적응을 못하지만, 모험심이 강해, 어려운 일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Nabi(1979)는 창의적인 사람들은 독립적이며, 자율적이라고 했다. 반면 Williams, Pool 및 Lett(1977)는 창의적인 사람은 복종적이고, 협동심이 강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Barron(1965)은 창의적인 작가의 경우, 뛰어난 언어 능력과 함께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성향, 강한 자아의식, 독립성, 높은 이상, 순응적이지 않음 등의 특성을 보였다고 했다.

McMullan(1978)은 단순하게 정의할만한 창의적인 성격은 없다고 결론지으면서, 반면 창의적인 사람은 다음 7가지의 '양극성'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 불완전한 형태를 종결하려는 욕구와 결합된 개방성
- 강한 현실성을 유지하려는 마음과 결합된 환상의 수용
- 건설적인 문제해결과 함께하는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태도
- 일에 대한 열정과 결합된 냉정한 중립성
- 이타주의와 공존하는 자기중심성
- 자기확신과 함께하는 자기비판과 회의감
- 이완감과 함께하는 긴장과 집중감

이러한 양극성의 특성들은 서로 모순적으로 나타나고, McMullan이 정의한 모순적인 성격이 함께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있어 정서적으로 여러 모순점이 있었다. 즉, 사회 지향적인 면과 사회 거부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났고 자기중심적이면서도 타인에 대한 인식을 하는 등 상반되는 특성이 함께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모순적인 특성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창의적인 사람의 성격 특성을 보는 연구가 있다. 즉 창의적 성취를 위해서는 대립적 성격 특성들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Csikszentmihalyi(1996)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성격 특징이 다양하기는 하나, 이를 10개의 큰 차원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 차원이 각각 대립되는 양극으로 나누어져 있다고(예: 내향성 대 외향성) 본다. 이 연구의 주목할 만한 점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양쪽 극단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격적이며 또한 협동적인 것처럼 일련의 양극단의 특성을 똑같은 강도로 내적인 갈등없이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폭넓은 특성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창의적 사람들이 갖는 복합적인 성격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창의적인 사람은 아주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조용하고 비활동적이며, 상상과 공상, 그리고 현실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창의적인 사람은 외향성과 내향성의 양극을 보이며 전통적이면서도 또한 독립적, 혁신적이고 정열적이면서도 객관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로 주목할 만한 것은 Rothenberg(1988)의 '야누스적 사고 이론'이다. 그는 두 얼굴을 가지고 동시에 두 방향을 볼 수 있는 로마의 야누스 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야누스적 사고'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야누스적 사고란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는 여러 정보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그는 '단일-공간적 사고'의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상충되거나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립할 수 없는 사고를 통합해서 참신성을 산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창의적인 사람은 야누스적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이렇듯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대조적인 개념, 형상, 아이디어를 동시에 활발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보된 추상적인 사고 형태로 창의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창의적인 사람은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양극단의 사고와 성격 측면을 동시에 수용하여 내재적인 과정을 거쳐 창의성을 발현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상호 배타적인 측면을 동시에 수용하는 경향성 중에서 두드러진 것이 독립적이며 개인적인 성향과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협동하는 측면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별성과 관계성이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 개인 내에 두가지 성향이 동시에 아무런 모순 없이 존재할 수 있고 창의적 성격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개별성과 관계성을 모두 높게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은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동시에 관계적이고 타인 배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일상적 창의성은 타인과의 관계성 안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면을 드러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성, 관계성 둘 다의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창의성의 성격요인과 개별성-관계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 창의성 성격 하위요인과 개별성-관계성 요인과는 상관이 있는가?

둘째, 일상적 창의성 성격 하위 요인이 개별성-관계성 각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일상적 창의성의 수준에 따라 개별성, 관계성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자

일상적 창의성의 성격요인과 개별성-관계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총 305명의 피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하였거나 무선적으로 답한 25명의 자료를 제외한 280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이들은 일상적 창의성 척도와 개별성-관계성 척도를 함께 제시받았다. 피험자들은 수업 중에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검사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피험자 분포

지역 / 성별	서울 (E여대)	서울 (Ko대)	경기 (Da대)	충청 (Ho대)	평균 연령	계
남	·	40	32	50	22.3	122
여	79	32	25	22	21.4	158
계	79	72	57	72	21.8	280

측정 도구

개별성-관계성 척도

김동직(1999)이 타당화한 것으로 개별성과 관계성 각각 15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완전히 그렇다(5점)'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별성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 주장성, 독립성, 자율성을 관계성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 친밀성, 공감성, 친화성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관계성 척도 .78, 개별성 척도 .73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일상적 창의성 척도

정은이(2002)가 타당화한 것으로 총 3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완전히 그렇다(5점)'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 요인으로 독창적 유연성, 대안적 해결력, 모험적 자유추구, 이타적 자아 확신, 관계적 개방성, 개성적

독립성, 탐구적 몰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적 창의성 척도는 Rimm과 Davis(1982)의 GIFFI Ⅱ(Group Inventory For Finding Interests)척도와 .70(p<.001)의 높은 상관을 보였고, Gough 척도의 창의성 요인과는 .54(p<.001)와의 상관을 보여 타당도가 높은 척도라고 할 수 있다(정은이, 2002). 일상적 창의성 척도가 이러한 창의적 성격을 측정하는 기존 척도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일상적 창의성 척도가 창의성의 인성 측면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척도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상적 창의성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9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자료의 분석

개별성-관계성과 일상적 창의성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 및 중다회귀 분석, 변량 분석 을 사용하였다.

결 과

일상적 창의성 척도와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상관 분석

일상적 창의성 척도의 하위요인과 개별성-관계성 척도와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표 2에서 보듯이 일상적 창의성 총점과 개별성, 관계성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개별성과는 0.44의 상관을 보였고 관계성과는 0.55의 상관을 보여 일상적 창의성은 개별성, 관계성 모두에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적 창의성 하위 요인 중 관계적 개방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개별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관계성과는 모든 하위 요인들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표 2. 개별성-관계성 척도와 일상적 창의성 척도의 상관관계

	개별성	관계성
일상적 창의성 총점	.44***	.55***
1. 독창적 유연성	.38***	.28***
2. 대안적 해결력	.39***	.33***
3. 모험적 자유추구	.49***	.36***
4. 이타적 자아확신	.29***	.47***
5. 관계적 개방성	.08	.64***
6. 개성적 독립성	.39***	.16**
7. 탐구적 몰입	.24***	.34***

** p < .01, *** p < .001

특히 관계성과는 이타적 자아확신 요인과 관계적 개방성 요인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개별성과는 모험적 자유추구 요인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일상적 창의성이 개별성, 관계성 둘 다를 설명할 만한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개별성-관계성에 대한 일상적 창의성의 상대적 설명력

일상적 창의성을 고려했을 때 개별성-관계성 각각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의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stepwise 방식)을 실시하였다.

개별성의 경우, 일상적 창의성의 요인 중 모험적 자유추구가 23.8%를 설명하고, 독창적 유연성이 3.1%, 관계적 개방성이 2.3%, 개성적 독립성이 1.9%, 대안적 해결력이 1.2%를 설명해 주고 있다. 관계성의 경우, 관계적 개방성

표 3. 일상적 창의성 하위 요인이 개별성-관계성에 미치는 효과

		R^2	누적 R^2	β	t
개별성	3. 모험적 자유추구	.238	.238	.356	5.36***
	1. 독창적 유연성	.031	.269	.121	1.84***
	5. 관계적 개방성	.023	.292	-.183	-3.28**
	6. 개성적 독립성	.019	.311	.148	2.54***
	2. 대안적 해결력	.012	.323	.153	2.21**
관계성	5. 관계적 개방성	.382	.382	.542	10.16***
	4. 이타적 자아확신	.016	.398	.191	3.28***
	6. 개성적 독립성	.009	.406	-.103	-2.00**

** $p < .01$, *** $p < .001$

이 38.2%를 설명해 주고, 이타적 자아확신이 1.6%를 개성적 독립성이 0.9%를 각각 설명해 주고 있다(표 3 참고). 특히 관계적 개방성과 개성적 독립성 요인이 둘 다 개별성-관계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창의성 상하 집단에 따른 개별성-관계성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적 창의성 상위 25%, 하위 25%로 나누어 상하 집단을 구성하였다. 표 4는 일상적 창의성 상하 집단 구성과 t 검증의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집단이 개별성과 관계성 점수가 모두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개별성 점수의 평균 차이를 보면 일상적 창의성 상 집단(M=3.31)이 일상적 창의성 하 집단(M=2.75)보다 의미있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t(145)$= -8.24, p<.001. 또한 관계성 점수의 평균 차이

표 4. 일상적 창의성 상·하 집단 분리에 따른 집단 구성과 t 검증 결과

	일상적 창의성 상 집단	일상적 창의성 하 집단	전체	t
사례수 (비율)	71 명 (상위 25%)	76 명 (하위 25%)	280 명	
평균 (표준편차)	149.26 (6.82)	113.34 (9.11)	130.69 (19.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별성	3.31 (0.56)	2.75 (0.48)	3.02 (0.59)	-8.24***
관계성	3.70 (0.44)	3.13 (0.35)	3.41 (0.49)	-7.06***

*** $p < .001$

를 보면 일상적 창의성 상 집단(M=3.70)과 일상적 창의성 하 집단(M=3.13)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145)$=-7.06, p<.001. 따라서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개별성과 관계성 모두 높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창의성의 성격요인과 개별성-관계성 변인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먼저 상관을 보았는데 일상적 창의성 총점과 개별성과는 .44, 관계성과는 .55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개별성, 관계성도 높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중다 회귀 분석, 변량분석을 통해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개별성, 관계성이 모두 높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그동안 창의적인 사람의 모순적인 인성 특성을 밝힌 많은 연구들(이신동, 2002; Csikszenmihalyi, 1996; Maslow, 1954; Tardif & Sternberg, 1988)을 정리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Csikszenmihalyi(1996)는 창의적 성취를 위해서는 대립적인 성격 특성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테면 매우 활력이 넘치는 외향적인 면을 보이다가도 때로는 말없이 조용한 내향적인 면을 보이는 것처럼 창의적인 사람들은 양극단의 특성을 모두 지닌다고 하였다. 즉 창의적인 사람들은 때로는 자율성과 자신감, 거친 남성적 성향과 민감성, 직관, 책임감, 섬세한 여성적 성향을 동시에 나타내는 양면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고 보았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양면적 성별 성향의 극단적인 모습을 조화롭게 통합한다는 것이다. 즉,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은 극도로 상반된 상황을 통합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개별성-관계성의 두가지 개념을 모두 높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미상으로 대립적으로 보이는 개념이지만, 한 개인 내에 두 가지 특성이 모두 높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창의적인 사람들은 독립적, 혁신적이며 자기 주장적인 특성 즉 개별적인 성향과 협동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외향적인 특성 즉 관계적인 성향을 모순됨이 없이 동시에 높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창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의미상 모순적이며 양극단의 성향들이 같이 공존할 가능성에 관한 시사점을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동직(1999)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직교적인 2차원임을 밝힘으로써, 서로 독립적인 변인으로서 둘 다 충분히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개별성과 관계성, 둘 다 높은 집단이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여 가장 심리적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지향적인 문화에서는 개별성의 대가로 소외와 고독감을 경험하기 쉽다(Greenfield, 1994). 서구에서는 최근들어 개인주의에 대한 한계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개별적인 독립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가 드러나고 있고, 인간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Chaibong, 2000). 반면에 관계지향적인 사회에서는 관계성의 대가로 개인의 발달, 즉 개성과 자유가 억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둘의 적절한 조화는 심리 · 사회적 적응 차원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개별성-관계성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추후 이들과 심리·사회적 적응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인과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집단 성원간의 대인관계에서 배타적인 우리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사회는 정보화 시대로의 진입과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개별 지향적인 성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다. 그러나 개별성-관계성이 상충되거나 상호 배타적으로 작용함 없이 능동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개인 내에 존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마련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 및 본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창의성의 영역을 구분하여, 영역에 따른 창의적 특성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최일호, 최인수, 2001; Boden, 1992; Gardner, 1993; Mansfield & Busse, 1981; Richards, 1999). 창의성의 영역에 따른 연구는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의 수행이 다른 영역의 창의적 성취와 비교적 독립적이라는 것을 가정하며(소경희, 2003), 창의성의 수준이 얼마인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창의성이 어느 영역에 존재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창의성의 영역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창의성의 성격요인만을 중심으로 관련성을 연구하였으나, 창의성의 다른 영역에 따라 개별성-관계성과의 관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일상적 창의성과 대별되는 전문적 창의성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연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둘째, 개별성과 관계성의 개념이 발달적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는 Guisinger와 Blatt (1994)의 견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전체 인간 발달과정에 대해 적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인 이후에도 이러한 발달적 관점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동직, 한성열 (1998).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71-93.

소경희 (2003). 지식기반사회의 맥락에서 본 '창의성'의 의미 및 그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논의. 교육학 연구, 41(3), 147-166.

이신동 (2002). 대학생용 창의성 성격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6(2), 43-62.

정은이 (2002). 일상적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 및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은이 (2003). 일상적 창의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교육문제연구(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8, 103-120.

정은이, 박용한 (2002). 일상적 창의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문제연구(고려대학

교 교육문제연구소), 17, 155-183.

정은이, 박용한 (2004). 일상적 창의성과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42(4), 379-399.

조윤경 (2003).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91-109.

채정민, 이종한 (2004).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이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793-814.

최일호, 최인수 (2001).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가능한가: 전문분야 창의성에 대한 학습과정 모형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409-428.

한기연 (2003). 개별성-관계성과 자기위로능력 관계에서 자의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75-89.

Banaji, M. R., & Prentice, D. A. (1994) The self in social contex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 297-332.

Barron, F. (1963). *Creativity and personal freedom.* NY: Van Nostrand.

Barron, F. (1965). *The psychology of creativity.* In New directions in psychology, Ⅱ.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Barron, F. (1969). *Creative person and creative proces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Berscheid, E. (1994).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 79-129.

Bloom, B. S. (1963). Report on creativity research by the examiner's offic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In C. W. Taylor & F. Barron(Eds.), *Scientific creativity: Its recognition and development* (pp. 251-264). New York: Wiley.

Boden, M. (1992). *The creative mind: Myths and mechanisms.* New York: Basic Books.

Brewer, M. B., & Gardner, W. (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3-93.

Bruner, J. S. (1962). The creative surprise. In Gruber, H. E., Terrell, G., Wertheimer, M (Eds.), *Contemporary approaches to creative thinking*. New York: Atherton Press.

Csikszentmihalyi, M. (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 Collins.

Cushman, P. (1990). Why the self is empty: Toward a historically situated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5,* 599-611.

Dolinger, S. J., Preston, L. A., O'Brien, S. P., & DiLalla, D. L. (1996).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f the self: An autobiographic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268-1278.

Drevdahl, J. E. (1956). Factors of importance for creativ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2,* 107-111.

Gardner, H. (1993). *Creating minds: An anatomy of creativity seen through the lives of Freud, Einstein, Picasso, Stravinsky, Eliot, Graham and Gandhi.* New York: Basic Book.

Greenfield, P. M. (1994). Independence and interdependence as developmental scripts: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pp. 1-40). Hillsdale, NJ:

Erlbaum.

Guisinger, S., & Blatt, S. J. (1994).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Evolution of a fundamental dialectic. *American Psychologist, 49,* 104-111.

Hahm, C. (2000). The cultural challenge to individualism. *Journal of Democracy, 11(1),* 127-134.

Helgeson, V. S.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12-428.

Mackinnon, D. W. (1960). The highly effective individual. *Teachers College Record, 61,* 367-378.

Mansfield, R. S., & Busse, T. V. (1981). *The psychology of creativity and discovery-scientists and their work.* Chicago: Nelson-Hall.

Markus, H. R., & Cross, S. (1990). The interpersonal self. In L. A. Pervin (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576-608). New York: Guilford Press.

Markus, H. R., &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per & Row.

Maslow, A. H. (1959). Creativity in self-actualizing people. In H. H. Anderson(Ed.), *Creativity and its cultivation*(pp. 83-95). New York: Haper & Brothers.

Maslow, C. (1961). *Toward the psychology of being. (2nd ed.).* Princeton: D. Van Nostrand.

McAdams, D. P., & Constantian, C. A., (1983). Intimacy and affiliation motives in daily living: An experience sampling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851-861.

McMullan, W. E. (1978). Creative individuals: paradoxical persoagers.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0,* 265-275.

Nabi, K. S. (1979). Personality and self: The creativity discussion. *Indian Psychological Review. 18,* 5-8.

Richards, R. (1999). *Everyday Creativity.* Encyclopedia of Creativity. Volume 1. Academic Press.

Rimm, S. & Davis, G. A. (1982). GIFFI Ⅰ and Ⅱ: instrument for identifying reactive potential in the junior and senior highschool.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6,* 50-57.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Rothenberg, A. (1988). Creativity and the homospatial process: Experimental studie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1,* 443-460.

Sampson, E. E. (1988). The debate on individualism: Indigenous psychologies and their role in personal and social functioning. *American Psychologist, 43,* 15-22.

Srull, T. K., & Wyer, R. S. (1989). Person memory and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96,* 58-83.

Storr, A. (1972). *The dynamics of creation.* New York: Atheneum.

Tardif, T. Z., & Sternberg, R. J. (1988). What do we know about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afimow, D., Triandis, H. C., & Goto, S. G.

(1991). Some test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vate and collectiv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649-655.

Williams, A. J., Poole, M. E., & Lett, W. R. (1977). The creativity self-concept relationship reviewed: An Australian longitudinal perspective. *Australian Psychologist, 12,* 313-317.

Woike, B. A. (1994). The use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processes: Empirical studies of "separate" and "connected" ways of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42-150.

1 차원고접수 : 2005 10. 10
수정원고접수 : 2006. 5. 10
최종게재결정 : 2006. 6. 2

KCI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06, Vol. 25, No. 1, 89-104

The Relation Between Everyday Creativity and Individuality-Relatedness

Jeong Eun I
Chungwoon University

Park Yong Han
Michigan State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making clear the relation between everyday creativity and individuality-relatednes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es, everyday creativity showed .44 of Pearson's r correlation with individuality and .55 of Pearson's *r* correlation with relatedness. This indicates that one who is high in everyday creativity has both high individuality and high relatedness. This result was support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nd *t* test. That is, a creative person has not only the individualistic disposition such as independence, originality, and self-insistence but also the related disposition such as cooperation, altruism, and extroversion. Those two dispositions are not incompatible. This result supports the several studies' suggestion that creative persons could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s. Also it shows the possibility that seemingly contradictory dispositions in their meanings can coexist.

Key words : everyday creativity, individuality, relatedness